

제주사회복지신문

> 2015년 9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95호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 8주년



지역사회 나눔문화 선도 최선

사회복지 정책과 동향 전달 노력

9월 1일,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 8주년이다. 다양한 복지소식이 오고 갔던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의 복지현안을 알리고, 나눔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칭찬도 있었지만, 더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관련기사 7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복지정책과 동향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83호 신문에서 '도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 원도정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밝혔다.

87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책변화를 보도했으며, 90호에서는 '도, 복지급여제도 맞춤형으로' 기사를 통해 변모하는 기

조생활보장제도를 조명했다. 91호에서는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전국최초 임금현실화' 기사를 실으며 현안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와 함께 '사랑나눔푸드마켓 이용자 10만명 돌파', '희망을 나눠요 사랑의 온도탑', '나눔명 살아온 대로 나눔대축제 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선도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더불어 도내의 중요한 복지 관련 행사들을 꼼꼼히 보도하고자 노력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장애인의 날, 전국장애학생체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및 각 시설단체들의 소소한 행사들을 알리며 사회복지현장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도 한 몫을 했다.

사회복지인 화합의 한마당

오는 11일 탐동해변공연장서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행복 제주시대'를 슬로건으로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가족 단체추념기대회가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시 탐동해변공연장 일대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원희룡 도지사와 구성지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및 생활(이용)인, 자원봉사자, 공무원, 도민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

뉘어 열린다. 1부 기념식은 아라어린이집과 경찰학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도내 13개 사회복지직능단체의 깃발입장이 있을 예정이다. 이웃사랑 실천 및 지역사회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인,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에 대한 유공자시상,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이번 기념식에서는 특별히 제주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시다 돌아가신故김성산 전 남제주요양원장,故박명자 전 (사)국제사회복지회 부설 노인복지센터장 두 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사회복지공헌패'

수여식이 진행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사회복지인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사회복지인 및 공무원, 대학생 등 도민을 대상으로 탐동광장에서 '사회복지가족 단체추념기대회'와 각종 레크레이션, 미니게임이 열린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해 9월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했으며, 국민의 사회복지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활동장려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일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 지난해 9월 18일 제주 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사회복지인권사랑방 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인권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

-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사례 발굴, 접수 및 상담, 법률지원
- 인권관련교육 :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인권강사 양성교육 등
- 사회복지현장 인권침해관련 국내외 사례 수집 및 전파
- 사회복지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추천

이용방법

- 상담콜 또는 E-mail을 이용한 초기상담 이후 지원방법이 제시됩니다.
- 상담콜 : TEL. 064)702-3782 (변호사 또는 담당직원이 응대)
- 전용 E-mail : tohic@naver.com (변호사 전용)

* 상담의뢰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지켜집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관용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운영위원회 위원

강병삼 변호사, 황인철 변호사
고현수 대표(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경미 소장(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장소영(인권전문강사)



서민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법률홈닥터' 사업도 함께 운영됩니다.

“사회보장 중복사업 조정 필요”

제발연, 복지분야 현금성 급여 실태조사 발표
현물급여·바우처 정책효과성 높아

제주지역 복지분야의 현금성 급여가 매우 다양해 유사사업이나 단위사업별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준) 정영태 전문연구위원은 지난달 11일 ‘제주지역 복지분야 현금성 급여 실태 분석’ 연구를 통해 지역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성을 분석하고 복지체계 개편에 대해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에 의하면 현재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업은 17개 부처에서 36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교육 43개 △보호·돌봄 39개 △요양돌봄 16개 △건강의료 67개 △고용 52개 △주거 34개 △문화여가 6개 △

생활지원 47개 △생계 29개 △재해보상 27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복지서비스는 제공 서비스 유형에 따라 현금성 급여, 현물성 급여, 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며 “현금성 급여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크고 자율성이 강조되나, 반대로 현물성 급여와 바우처 서비스는 정책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또 “현금성 급여는 재원 집행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어려우므로 예산 지원에 따른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물 급여 또는 바우처와 병행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외에도 “도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전적 성격의 사업인 경우 조정하도록 권고될 예정이므로, 사전에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통합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복지분야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여전히 낮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규모의 현실화 등은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지역특성을 반영해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유사사업이 확인되고 있음에 따라, 동일 대상 및 동일 사업의 경우 사업명을 통합하고, 지원범주 및 지원 대상에 대한 통합규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장애인 관광 인프라·인식 개선해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표창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삼양·봉개·아라동)가 주최하고 제주도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주관한 ‘접근 가능한 제주여행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월 30일 제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지역 장애인 관광의 현실을 개선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여행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선 여행작가 겸 한국장애인문화관광센터 대표는 ‘장애인당사자가 말하는

제주관광의 현실’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가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정보와 인프라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전문선 대표는 “많은 수의 제주여행 지도와 리플릿이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안내지도 및 리플릿은 어디에도 없다”며 “첫 인사를 나누는 관광안내센터에서조차도 장애인을 안내해 주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전 대표는 “여러 장애인들이 일부 관광업계의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기분 나쁜 경험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9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보도자료 접수’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사회복지협의회)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제10회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보치아 대회	•출전선수 : 64개 경로당(팀) / 320명 •참가인원 : 2,000명	4일(금) 10시 ~ 18시 한라체육관	727-4500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협회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창작공연발표, 작품전시 등 어울림의 장	8일(화) 10시 ~ 16시 서귀포시 올림피아기념 국민생활관	732-500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검찰청	가정폭력, 아동학대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세미나	•가정폭력 원인 및 대책 발표, 토론 - (검찰) 검사 1인(발제), 변호사 1인(지정토론) - (학계) 제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광영숙 교수(발제) - (법원) 판사 1인 (발제), 변호사(지정토론) - (실무) 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 김양순 소장(발제)	16일 (수) 14시 제주KAL호텔 로즈룸	710-288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15회 사회복지 자원봉사 신규인증요원 양성교육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인증관리 DB시스템 활용 등	16일(수) 14시~18시 협의회 2층 삼다수홀	702-3784
	프리젠테이션 및 스피치 기법	•정중한 스피치를 위한 기본 매너 - 표정, 시선, 자세, 제스처 •마음을 사로잡는 보이스 기법 • 집중하게 만드는 집중 기법	17일(목) 14시 ~ 18시 협의회 2층 삼다수홀	
제주이주민센터	제15회 이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개최	•우리고유 전통놀이 체험 •여자추기, 단체줄넘기·줄다리기, 터널공물이 등 •무료 이미용 및 거주외국인 건강검진 등	28일(월) 13시 ~ 18시(예정) 제주대학교 체육관	712-1141



“세상에나 가장 맛있는 나눔”

8월 기탁 현황

▲JSM사후면세점=쌀 400kg ▲금강수산유통=간고등어 40kg ▲금강축산유통=돈반골 234kg ▲김치원=김치 40kg ▲꽃비나리는뜨락=떡 448개 ▲동원F&B제주=동원식품 4,727개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522모 ▲신대구유통=참외등 69개 ▲이든이네=건멸치 12kg ▲자연드림이도점=빵 423봉 ▲제성상회=순대 18kg ▲제주보리촌=보리빵 750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200팩 ▲제주특별자치도청춘샘봉사회=잡쌀고추장 80kg ▲(주)제키스=제과류 816세트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94봉 ▲행복나눔마트=설탕 114kg



사회복지협의회 2015년 7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사용액
재가결연후원	670,000	0
난치병환아후원	70,000	0
자원봉사후원	385,000	385,000
복지사업후원	955,000	515,720
푸드마켓후원	2,535,000	617,87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경윤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동네 병·의원 노인 독감백신 무료접종

제주보건소는 올해 10월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노인대상 독감백신(인플루엔자)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대상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은 지난해까지 보건소에서만 이뤄져 왔다. 제주보건소는 노인독감 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접종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역내 병·

의원 72곳과 위탁계약체결을 완료했다.

한편, 올해 노인독감 예방접종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며,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만60세~64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무료접종은 지난해와 같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배움 향한 열정 가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에서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장연 강사를 초빙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했다.

추석맞이 선물 ‘이웃의 정성을 팝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효철)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사업단 ‘서로좋은가게’에서 추석맞이 선물을 판매한다.

판매되는 물품은 녹색상품(생활용품), 황금향을 비롯한 과일, 돼지고기, 옥돔,

고등어선물세트, 제주야생초차 등이며, 가격대는 1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예약마감은 9월 22일까지이며, 현장구매, 배달·택배는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문의=713-1298〉



‘여기는 여성장애인이 행복한 동네’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여성장애인들의 상호교류 및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여기는, 여성장애인이 행복한 동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여성발전기금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사업은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욕구해소 및 당사

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사업은 여성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반영해 DIY교실, 이미지메이킹, 인권강좌 등의 평생교육, 권역별 여성장애인 간담회, 권역별 찾아가는 여성장애인 리더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용친화 사업장 인증제도 신설해야”

제주여가원, 여성중증장애인 생활실태조사 발표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현혜순)은 지난달 11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 중증장애인의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해 실시된 실태조사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여성중증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연화(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 여성중증장애인 가운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178명(59.3%)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은 122명(40.7%) 보다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근무처에 대한 설문에서는 장애인 관련단체(27.9

%), 일반회사(2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18%), 자영업(15.6%) 순이었으며, 정부관련기관 종사자는 2.5%로 가장 낮았다.

또 임신·출산지원 정책 욕구에는 ‘의료기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산후조리 비용지원확대’가 각각 16.8%로 가장 많았다.

이 연구원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자녀양육지원제도, 여성장애인 고용친화 사업장 인증제도 신설 등을 통해 여성중증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제주농아인 문화페스티벌·전도수화경연대회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회장 박춘근)는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제4회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 ‘울림’ - ‘섬, 제주 수화를 품다’와 제18회 전도수화경연대회 ‘S담手談, 손의 언어를 말하다’

를 개최한다.

먼저 11일 금요일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농문화체험 울림한마당’이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행사에는 다양한 농문화

체험(수화교육, 수화이름 짓기, 지문자명함 만들기 등) 및 부대행사(캐리커처, 타로점 등)가 마련될 예정이다.

12일에는 제18회 전도수화경연대회 ‘S담手談, 손의 언어를 말하다’가 서귀포시 학생문화원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경연대회 참가자격은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다만 청각장애인이 팀 구성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참가부문은 △노래(5분이내) △연설(7분이내) △연극·기타 수화로 표현하는 공연(10분이내)이다.

5, 6일 한라배 전국장애인태권도 대회

제2회 한라배 전국장애인태권도대회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태권도협회(협회장 김권태)가 주

최하는 한라배 전국장애인태권도대회는 전국장애인들에게 태권도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

·도의 6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태권도로 하나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장애유형별 겨루기, 품새, 태권체조 등이 진행된다.

18, 19일 도지사배 전국장애인사이클 대회

제9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장애인사이클대회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사이클연맹(회장 양예홍) 주최, 제주시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18일부터 이틀간 김녕~구좌 해안도로 구간에서

열린다.

총 3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장애인 사이클 선수들의 화합과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대회 후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국민생활체육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연합회가 참여했다.

구좌유스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함께 어린이 꿈 키워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미란)는 구좌지역내 지역아동센터와 연합으로 결성된 ‘구좌유스오케스트라(지휘자 김태근)’ 창

단연주회를 지난 13일 해녀박물관 야외무대에서 열었다.

구좌읍이 주최하고,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가 주

관한 여름밤의 힐링음악회에는 기관단체장, 학부모,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구좌유스오케스트라는 지난해 9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동하며 전체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을 배우고자 구좌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40여명이 모여 구성됐다.

박 센터장은 “이번 음악회로 아이들이 작은 성공과 반짝이는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상담 받으세요”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 12일 ‘제4회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주거복지실현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상담의 날 행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의 날 행사에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외 여덟 개의 복지관련 기관(제주대학

교 제주지역암센터, 아라동주민센터, 아라LH아파트관리사무소, 제주사회복지협의회법률상담터,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취업지원센터,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등)이 참여해, 주거복지상담 및 참여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상담기회도 제공했다.

아라온 해수사우나, 연간 600만원 이용권 기탁 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아라온해수사우나(대표 장승남)가 푸드마켓 운영사업 지원 및

상호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아라온해수사우나는 매월 50만원 상

당 100장(연간 600만원)의 사우나이용권을 사랑나눔푸드마켓에 정기적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아라온해수사우나에서 기탁한 이용권은 지역 내 저소득층, 재가장애인, 홀로사는 어르신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도내 소외계층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사회 나눔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한약지원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단장 이정필)과 제주한의봉사단(단장 이상기)은 지난달 10일 서귀포 정방한의원에서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을 통해 봉사단은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적극 지원·협력하고, 지원단은 업무협력 및 각종 정보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봉사단은 지난 12일부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삼복첩을 지원하고, 아동 중 비염, 아토피 등의 질환이 있는 아동들에게는 1개월간의 집중 진료 통해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김수진 씨, 따뜻한 나눔의 마음 담은 쌀 후원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수진 씨는 지난 7월 31일 제주

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예홍)을 방문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쌀(10kg) 70포대를 전달했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평소 사회복지에 뜻이 있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원하게 되었다는 후원자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 기증받은 쌀을 소외되고 자립여건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주민 직무능력 향상 수화교육 진행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여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

효철)와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협회장 박춘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8월 3일부터 총 20시간의 수화교육을 진행했다.

수화교육에 참가한 저소득주민들은 제주이여도지

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꿈드림사업단의 참여주민들로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시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관내 통합·특수학교에 보조 인력으로 파견돼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기여하고 있다.

재능나눔 봉사캠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지역사회 기업과 학생,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재능나눔 봉사캠프’를 지난 7월 31일부터 이틀간 김녕어울림센터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날 캠프는 김녕중학교 학생과 대학생, 장애인들이 각각 1명씩 8개조를 이뤄 해양레포츠활동과 조별 모듬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김녕방파제 벽면에 김녕마을의 이미지와 섬, 장애인식개선 등을 주제로 한 벽화를 그리며 지역사회에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남겼다.

● 소/식/마/당

비장애형제자매 힐링체험 프로젝트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장애형제자매를 둔 초·중·고학생 대상으로 정서지원프로그램 ‘힐링체험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8월 한 달간 총 4회기에 걸쳐 냅킨아트공예, 예코백과 머그컵 만들기, 요리배우기 등을 체험하며 비장애형제자매들간의 상호지지체계 형성을 통해 공감과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여름캠프 신나는 여름이야기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 이용자들이 무더위가 절정이던 지난 8월 한라팔공회(회장 김원창)의 지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찾아가 신나는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한라팔공회 회원 35명은 이용자들의 이동은 물론 식사, 물놀이활동에도 함께하며 뇌병변 중증장애인들의 쉽지 않은 바깥나들이를 적극 지원했다.

이용아동, 정성기업 후원 나들이



한빛지역아동센터(센터장 주종훈)는 지난 7월 31일 정성기업의 지역후원으로 이용아동들과 함께 서귀포 워터월드를 방문했다.

정성기업은 센터 아동들의 이동을 위해 대형버스를 준비했고, 워터월드 입장료, 저녁식사 등의 비용을 모두 후원했다. 이날 센터 이용아동들은 즐거운 물놀이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자폐성 장애인 권리증진 프로그램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자기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권리증진 프로그램 ‘고르고 (Go!) 즐기고(Go!) 느끼고(Go!)’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 한담대로 트래킹 코스, 서커스장 등을 찾아다니며, 이용인들이 직접 선택하고 참여해 자기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뒀다.

몽골 현지인들의 성지요양원 방문



지난달 10일 몽골의 한 종교시설 내 노인봉사단 단원 50여명이 선진기관 견학으로 성지요양원(원장 송창권)을 방문했다.

송창권 원장은 방문한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국내 요양원들의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성지요양원 시설과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도 소개했다.

바다로 함께 떠나는 힐링의 시간



유진주간활동센터·단기거주시설(원장 최은미)은 지난달 7일에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괄지해수욕장을 찾아가 이용인들과 함께 힐링 시간을 가졌다.

센터 직원 및 이용인 40여명이 참여한 이날 활동은 물놀이를 비롯해 천하장사 씨름대회, 튜브안고 릴레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모처럼 더위에서 벗어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여름 맞이 후원물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과 부설 제주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는 여름철을 대비해 도내 총 30명의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전문기관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후원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며, 노인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바리톤 한동훈씨, 음악회 수익금 기부



제주출신 핀란드국립오페라 단원 한동훈 씨가 카페 ‘더 핀란드’(대표 김지은) 주최로 열린 나눔음악회를 통해 나온 공연수익 전액을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에 후원했다.

한편, 한동훈씨는 제주도 태생으로 경희대 음대, 독일바이마르국립음대를 거쳐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핀란드국립오페라 단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재원이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행복한 원예치료



사)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협회장 김경신)가 지난 7월 30일 용수·용당·두모·조수2리 4개 경로당 25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원예치료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열린 원예치료 교실의 프로그램은 여름철 무더위를 잘 이겨내 시라는 마음을 담아 시원한 유리볼에 행운목을 심는 테라리움 만들기로 진행됐다.

2015 여름추억 만들기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은 지난 7월 28일 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 지원으로 남자이용자 14명과 SK직원 7명, 교사 7명이 서귀포 워터월드에서 여름휴가 ‘2015년 여름추억 만들기’를 진행했다.

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제주애덕의집 이용자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해수욕장 또는 풀장 등에서 바다체험 활동을 지원해 왔다.

저소득 미취학 아동 위한 미술활동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저소득층 미취학아동의 언어발달 및 정서지원을 위한 미술활동 ‘재미재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재미재미’ 프로그램은 봉사자의 재능기부로 매주 목요일(총5회기) 발산성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소득층 미취학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마음껏 표현하며 안정된 정서 지원과 언어발달을 촉진했다.

상반기 부모회의 실시



헤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지난달 7일 상반기 부모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이용장애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복지기금사업 등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상반기 이용장애인들의 시설 내 작업태도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부모상담도 실시됐다.

시론

경조사 답례품을 기부물품으로 활용 모색해야



한 영 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어려운 이웃들과 생필품을 나눠 갖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의 ‘사랑나눔푸드마켓’ 운영 실적이 돋보인다. 2009년 6월 개점 이후 6년 만에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이는 하루 평균 50명, 월 평균 1,500명이 푸드마켓을 이용한 것이다.

기부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9억5천여만 원에 이른다. 이용자 1회당 2만 원에 가까운 기부물품을 받아간 셈이다.

개점 첫 달 2,100명, 4천6백만 원이었던 실적에 비하면 증가속도가 빠르다. 그만큼 이웃을 생각하는 도민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기부 물품은 늘 부족하다. 그만큼 찾는 이웃이 많기 때문이다. 선호하는 물품

은 쌀이나 국수, 라면 등의 주식류와 치약·세제 등의 생필품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조사 때 받은 개인 답례품만이라도 기부물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를 통해 기부자의 저변 확대와 물품의 다양화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부자 저변 확대 필요

실제 도민사회에서는 경조사 문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경조사를 찾은 사람들에게는 답례로 치약·비누·세제·쌀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볼 일이 많은 가정에서는 경조사 답례품이 넘쳐나기도 한다. 이렇게 쌓인 답례품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눠 쓴다면 기쁨은 두 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 일부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늘어나는 답례품을 기부물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식조차 조성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기부자와 이용자, 그리고 운영자 사이에서의 원활한 전달창구

가 형성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답례품 기부의 중요성, 기부물품 전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된 스티커 홍보를 활용할 수 있다.

홍보는 아파트단지, 마을회관,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기부의 편의를 위해 기부함을 아파트관리실, 마을회관, 읍·면·동사무소 등에 비치한다면 원활한 기부체계를 갖출 수 있다. 또는 푸드마켓 매장 입구에도 기부함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기부실적 누적제 도입도

이와 함께 기부실적 누적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기부자에 대한 DB관리를 통해 연간 실적 등을 관리하고 모범 기부자를 선별해 시상하는 한편 공공휴양시설 이용기회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들이 모색된다면 기부문화는 한층 풍성해질 것임을 확신한다.

기고

생각해 봤는가요?



이 은 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에 읽은 책이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이 지은 「생각해 봤어?」라는 책을 읽었는데 영리병원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대형 병원이 자회사를 만들고 선택진료부터 부대사업의 영역을 넓혀 이윤을 극대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익배당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 진료, 치료, 부대 서비스 등이 전부 시장경제식으로 조직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주장

이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내국인이 이용하는 병원이 영리병원이 되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로 외국의료기관의 대상은 외국인으로 건강보험문제, 의료수가 등과 관계가 없다.

물론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도 이용은 가능하나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 않으며, 지금도 돈 있는 사람은 해외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것을 차라리 국내에 있는 외국의료기관에 가서 쓰면 외화 낭비를 줄이고, 관광수요,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외국의료기관의 도입이 추진된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의 도입은故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당선자 전국순회시 “제주 스스로 자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임기 안에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원하고 싶다”는 말씀을 필두로 2005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확정 발표됐다. 당초 의료분야에 외국병원 설립허용 특례는 물론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특례조항까지 허용하여 경제자유구역(인천)과 차별화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외국의료기관의 설립만 허용하는 특례가 만들어졌다.

외국의료기관의 운영으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다양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도 있는데, 일부에서 외국의료기관을 마치 성격이 전혀 다른 국내 영리병원 도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칼럼

장애, 부분적인 불편의 의미일 뿐



김길용

시인·수필가

버클리음대 첫 시각장애인 교수 김치국 씨. 그의 삶은 감동적이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했다는 그. 심장은 좋아졌는데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다. 4살

때의 일. 불행히도 보이는 것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없다.

만약,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싶으냐고 묻자 예상을 빗나간 대답을 했다고 한다. 자신을 위해 평생 애쓴 주름진 부모의 얼굴이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악보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연주하고 싶어요” 질문을 던진 사람이 목이 매었다는 것이다.

안 보이는 그에게 부모가 피아노를 가르쳤다. 하루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기도원에 갔다. 예배 도중 전기가 나가 어둠에 휩싸이고 반주자가 당황해 했다. 그때, 어머니가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치국아, 네가 나가서 피아노를 쳐 보렴” 깜깜한 실내에서 아이는 거침없이 건반을 눌렀다. 그에게 전기가 만든 빛은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 “난생 처음 환할했어요. 어둠이 내겐 빛으로 다가온 것이죠”

보지 못함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컴퓨터에 익숙했던 그가 자연스레 컴퓨터 음악에 빠져 갔다. 자판에 점자를 붙여 작곡을 시작하게 되고, 재능을 키워 주고자 비장애인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나라 미국의 고등학교로 유학을 보낸 부모. 마침내 버클리 음대에 진학했지만 한 번도 악보를 본 적이 없다.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려면 필수가 악보다. 악보를 그려야 했다. 다행히 ‘시빌리우스’라는 어려운 프로그램을 통해 악보를 그릴 수 있게 됐다.

“장애는 불가능을 뜻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불편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불편하고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장애에 묶이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꿈조차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잇따라, 보이는 것 대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사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축복’이라 술회한다.

그는 5년 전, 29세에 버클리음대 교수가 됐다. 시각장애인 최초다. 시각장애인들의 음악 감상을 위한 작곡 강의를 맡고 있다.

만약, 눈이 보이는 것과 가족 둘 중 택일하려면, 절대 눈 뜨기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가족은 내겐 천사이고, 보지 못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가 웃으면, 그때마다 빛을 잃은 그의 눈에서 환한 빛이 나온다.

창간 8주년 특집 제주사회복지신문에 바란다

“현장 중심의 복지전문지로…”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여덟 돌을 맞았다. 이에 이번 특집은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획으로 구성됐다. 복지현장 전문가 6인을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제주사회복지신문의 모습을 들어봤다. (가나다 순) 〈편집자 주〉

고 관 용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관중심 보도 벗어나 지역사회 복지활동 조명 필요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다양하고 폭넓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현황과 이슈에 대응해 주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서민법률주치의 기사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반적 법률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어 매우 유익하다.

그러나 현재 복지신문은 기관소식을 중심으로 기사가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사회에는 기관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 하는 곳이 많다. 앞으로는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지역주민과 기관, 지역주민과 지자체 간의 연결을 위한 고리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읍·면마다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위원들을 만난다거나, 지역사회에서 조용히 봉사하고 있는 자생단체나 독자적 봉사단체를 조명했으면 좋겠다. 이들이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전조사를 통해 ‘착한 봉사단체’를 선정하는 기획도 마련해 봤으면 한다.

김 성 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

복지사안에 대한 시리즈별 기사로 차별화

평소 제주사회복지신문을 보면서 기획과 기사 내용이 기성언론 못지않으며, 편집도 탄탄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굳이 더욱 신문이 향상되도록 말씀을 드리면, 복지사안에 대한 시리즈별 기사가 있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생계·주거·의료·교육으로 나뉘는 맞춤형 급여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연재 기획한다면, 복지체감도에 대한 좋은 정보를 복지관계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복지시책과 관련한 다양한 기획을 통해 복지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및 공무원 등이 어떻게 복지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지 그 땀과 노력의 과정을 보도해, 독자들에게 감동과 만족감을 주는 기사도 실렸으면 한다.

김 지 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지역·이웃·약자 대변하며 한 단계 올라선 신문 돼야

현재 제주사회복지신문은 협의회의 특성상 사회복지시설·기관 홍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정보제공지로서의 역할이 현재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할 때라고 본다.

정보제공과 더불어 복지 현장의 문제에 대한 대안과 견해를 밝히는 사회복지정론지로 갈수 없는지 내부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사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계에서 읽히는 신문이지, 도민이 찾는 신문은 아니다. 이제는 변화를 통해 독자층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이웃, 약자를 대변하는 신문이 돼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솔직하게 다룰 수 있는 신문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 어떤 언론보다 복지와 관련해 세밀하게 정황을 밝혀주고, 차후 대책까지도 제안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정 필
제주지역아동센터
지원단장

타 언론이 다루기 어려운 사회복지분야 심층보도 중요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에서 사회복지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있기에 사회복지 소식과 정보가 멀리까지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도정·도의회 출범 1주년 성과와 과제’ 기사는 인상적이었다. 이런 부분이야 말로, 사회복지 전문지가 할 일이라 본다. 복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원도정의 1년을 되돌아보는 것을 다른 언론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식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홍보성 내용은 한 곳으로 모아내고, 남은 지면을 타 언론이 다루기 어려운 이슈를 선정해 심층보도 했으면 한다.

복지에 관해서는 타 언론이 우리 신문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제주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과 이슈 모두 제주사회복지신문을 봤을 때, 정확히 알 수 있었으면 한다.

윤 보 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조금 덜 완벽하더라도 생동감 넘치는 참여형 신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신문이 되었으면 한다. 현재도 적은 지면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알차게 담겨 있는 신문이라 생각하지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참여시켜 더 현장감 넘치는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완벽 추구보다 조금 빈틈이 있더라도 생동감이 넘치는 신문이 돼야 한다. 신문의 큰 기둥은 편집위원들이 정하고, 다양한 사람들은 그 손과 발이 돼 지면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신문은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도 중요하다. 과정의 숨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 것이다.

페이퍼 정보지 홍수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받고 읽혀지기 쉽지 않다. 종이 신문이 갖는 고유의 생명력, 가치를 최대한 잃지 않기 위해서는 독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인, 도민들의 시각을 담는 제보형 기사 코너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윤 흥 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장

각 분야의 협회와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 전달해야

신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협회와 소통하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협회별 관련 이슈를 돌아가면서 특별기고형식으로 게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행사소식을 줄여야 한다. 소식을 알리는 데에도 기준이 필요한데, 우수한 사례로 수상을 한 경우나, 타 기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뉴스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면의 크기에 비해 제목이나 사진을 너무 크게 편집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본다. 기사의 서두에 기관명과 대표의 이름을 부각시키는 것도 불필요하다. 신문은 소식지와 달라야 한다. 내용중심의 정보지가 되기를 바란다.

시설탐방

(70)신촌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윤화순 센터장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꿈찾기 도울 것”

에너지가 넘쳤다. 아이들과 선생님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 여름이라 더울 법도 한데 그런 기색도 없었다. 금방 센터 앞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들어왔기 때문이었을까. 모두가 그저 밝았다. 문득, 그 에너지의 원천이 궁금해졌다. 지난달 20일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곳, 신촌지역아동센터(센터장 윤화순)를 찾아갔다.

신촌마을 내에 위치한 신촌지역아동센터는 2006년 12월 지역 내에서 가정의 어려움으로 교육 및 문화적 소외에 놓인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촌교회가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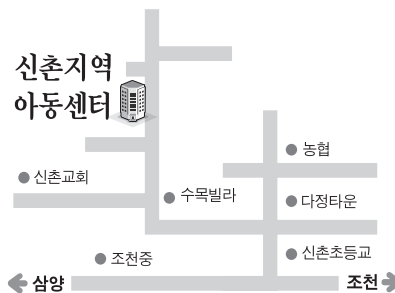
이후 올해로 9년째 운영되고 있는 신촌지역아동센터는 총 29명의 신촌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는 시설장을 비롯해, 생활복지사 1인, 아동복지교사1인(파견교사), 조리사 1인, 사회복지시설도우미(자활근무자) 1인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신촌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체험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한 숙제지도나 급식제공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문화체험 및 프로그램, 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진행 중이다.

체험형 문화프로그램은 크게 음악과 미술 교육으로 나뉜다. 음악 교육 수업은 지역 내 단체의 지원을 통해 피아노, 바이올린, 풍물, 국악 수업을 5명 내외가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미적 재능을 발굴하고 기르기 위한 그리기, 색종이접기, 클레이 등의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센터는 매년 정서상의 문제를 겪는 아이들을 선정해 1:1상담, 부모상담, 단체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각적인 상담이 이뤄지고 나면 충동이 많았던 아이들은 감정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침체된 성격을 가졌던 아이들은 자기주장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와 함께 신촌지역아동센터는 올해로 5회째 ‘작은음악회’를 열어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처음 작은음악회는 아이들이 배운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의 실력도, 공연장도 커져 동네 아이들과 부모님, 지역주민이 모두 모여드는 마을 축제가 됐다.

윤화순 센터장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이들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열정을 가지며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26)

하귀초와 함께하는 영상교류 캠프



‘하귀초와 함께하는 영상교류 캠프’가 지난달 1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제주중학교와 하귀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한 이번 영상교류캠프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영상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카메라 작동법, 촬영방법 등을 알려주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다.

이 곳에서 몽생이 기자단은 그간 받은 교육을 토대로 하귀초등

학교 학생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미디어 교육을 알려주고 함께 시나리오 작성과 미니영상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실시했다.

제주중학교 몽생이기자단은 2015년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지원사업의 배움터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1학기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로 모여 카메라 기본교육부터 시작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교육을 받아왔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24

협의이혼시 의무 상담제도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제주에는 전국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지역이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해 거의 2,000여 쌍이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당사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부부의 이혼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늘어난다.

무작정 이혼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겠으나 사소한 문제 또는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이혼을 막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 우리 민법은 협의 이혼의 경우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뒤 부부가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는데, 당사자들에게 이 기간이 그저 이혼의 결심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되는 협의 이혼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의무적으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협의 이혼이 진행되도록 강제하고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있으며 협의 이혼 신청 시 상담기관 및 상담일정을 정하여 부부가 함께 해당기관을 방문하고 1~5회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은 부부 및 가정문제 전문 상담 기관인 제주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사랑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부설 희망상담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이며 비용은 제주지방법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지금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의무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는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사항: 제주지방법원 협의이혼계 064-729-2148〉



※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람' 내 사회복지신문을 방문하시면, 기사의 따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